

《朴通事新註新譯(二)》

李陸禾*

<목 차>

1. 緒論
2. 本文

1. 緒論

《原本老乞大》¹⁾、《老乞大》、《重刊老乞大》、《老乞大新釋》와 《翻譯朴通事》、《朴通事諺解》、《朴通事新釋(諺解)》 등의 이른바 『老乞大·朴通事』 系列書는 高麗末부터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년 동안 中國語학습을 위해 편찬된 중국어회화 教材이다. 이러한 『老乞大·朴通事』 系列書는 中國의 元、明、淸의 여러 朝代를 거치면서 그 시대가 가지는 언어의 환경과 변화에 맞춰 일정한 시기를 두고 改修編纂되어 當時의 중국어학습서로 中國은 물론이고 세계의 여타 文獻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의 것이다.

『老乞大』가 旅行과 交易을 중심으로 한 日常用 初級 會話라면 『朴通事』는 風俗、世態、娛樂、婚喪、宗教、賣買、訟事、文書 등 당시 中國의 사회적 풍속과

* 光州大學校 中國語科 教授

1) 《原本老乞大》는 1998년 경북대학교 南權熙교수가 최초로 古本《老乞大》를 發見 한 후, 정리를 거쳐 2000년 경북대학교 출판부에서 《元代漢語本老乞大》라는 서명으로 출판되었고, 같은 해 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에서 《原刊老乞大研究》이라는 書名으로 각각 출판되었다. 2002년에 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에서 修訂本(鄭光 主編)을 다시 出版하면서 《原本老乞大》라고 改名을 하였다. 또한 鄭光은 《原本老乞大》(2004년, 김영사)라는 書名으로 解題와 譯註를 하였고, 또 다시 수정판의 《(譯註)原本老乞大》(2010년, 박문사)를 최근 에 다시 출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생활문화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른바 고급 회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언어학적 측면의 가치 외에도 元代에서부터 清代에 이르기까지, 당시 중국의 사회적 특징과 생활 문화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는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朴通事』는 세종 때부터 여러 차례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原本老乞大》와 같은 漢語本 《朴通事》는 전하여 오지 않는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翻譯朴通事》이며, 改修本으로는 《朴通事諺解》, 《朴通事新釋》, 《朴通事新釋諺解》 등이 있다.

《翻譯朴通事》(이하 《翻朴》)는 《翻譯老乞大》와 동시기(1515년 경)에 崔世珍에 의하여 편찬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간본은 表紙書名과 版心書名이 「朴通事」 상이라 되어 있고 본래는 上中下 3권이었는데, 현재는 上卷(76장)만 國會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朴通事諺解》(이하 《朴諺》)는 上中下 3卷(상권 76장, 중권 61장, 하권 62장)으로 肅宗 3년(1677년)에 邊暹, 朴世華 등 12명이 편찬한 판본이다. 李聃命의 序文에 의하면 《老乞大諺解》가 《翻譯老乞大》를 참조하여 편찬한 것과는 달리, 《朴諺》은 《翻朴》을 직접 보지 못하고 『老朴集覽』에만 의거하여 《朴通事》漢語文에 대한 諺解(번역)와 註釋의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원본은 현재 奎章閣(奎1810)에 소장되어 있다.

《朴通事新釋》은 『朴通事』系列書 중에서 유일한 純漢語文 간본으로 표지 서명은 「朴通事」이고, 版心書名은 「朴通事新釋」이다. 이 간본은 序文이 있고 卷末에 檢察官 邊憲, 李湛(李洙) 등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刊行年代가 밝혀져 있지 않다. 이 刊本은 그 이전의 《朴通事諺解》의 漢語文과 비교하여 보면 106개의 절로 이루어진 기본 줄거리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漢語文의 많은 구절을 보충·수정하였음을 볼 수 있다.

《朴通事新釋諺解》는 金昌祚 등이 본래의 《朴通事》를 대폭 수정하여 《朴通事新釋》을 만들고, 이를 諺解하여 1765년(英祖41년) 3권 3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이 책에는 序文이나 跋文 그리고 刊記는 보이지 않는다. 그

러나 「通文館志」 卷八 「什物」 續條에 「朴通事新釋諺解」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新釋朴通事諺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임으로 해서 이 책의 著者和 刊年을 알 수 있다.

新釋朴通事諺解板

訓長金昌祚等修整 乾隆乙酉箕營刊板

즉 金昌祚 등이 修整하여 1765년(乾隆乙酉)에 平壤(箕營)에서 刊行하였다는 것이다. 《朴通事新釋諺解》는 서울대 一簣文庫, 舊藏書閣(現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 논문은 《朴諺》의 漢語文에 대한 註釋과 翻譯이다. 『朴通事』系列書의 最古本은 《翻朴》이나 《翻朴》은 上中下 3卷 가운데 上卷만 남아 있어 《朴諺》만이 『朴通事』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朴諺》의 漢語文은 《翻朴(上卷)》의 漢語文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朴諺》의 漢語文이 『朴通事』의 實體라고 추측되고 있다.²⁾ 본 논문은 《朴諺》의 漢語文에 대한 註釋과 翻譯이고, 諺解부분은 단지 참고만 할 뿐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朴通事新註新譯》³⁾이라는 題目으로 諸賢들의 高見을 구하고자 한다.

《朴通事》系列書에 대한 既存의 譯註書로는 前述한 《翻譯朴通事(上卷)》, 《朴通事諺解》, 《朴通事新釋諺解》 등 3종의 翻譯(諺解)書와 註釋本이라 할 수 있는 《老朴集覽》이 있고, 近來의 譯註로는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1)>(中國研究 第37卷 06年), 최재영·정윤철 <朴通事諺解譯註(2)>(中國語文論譯叢刊 18輯 06年), 왕하·유재원·최재영 <朴通事諺解譯註(3)>

2) 《老乞大》, 《翻譯老乞大》, 《老乞大諺解》의 漢語 本文이 일치하고 있다.

3) 本稿는 既存의 '譯註'라는 명칭과의 중복을 피하고, 또한 既存의 譯註(諺解)本의 미진한 부분을 새롭게 해석하고 보완을 했다는 의미로 '新註'라고 하였다. 또한 原文을 한글로 번역함에 있어 直譯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부 매끄럽게 번역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原文 本然의 모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意譯의 방법을 택하였으며, 또한 현재에 통용되고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한글의 번역을 하였고, 또한 '諺解本'과는 차별을 두고자 하여 '新譯'이라고 하였다.

(中國研究 第40卷 07年),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4)>(中國研究 第42卷 08年), 王霞·崔宰榮 <朴通事諺解譯註(5)>(中國語文論譯叢刊 第23輯 08年)⁴⁾ 등이 있다.

위에서 설명 한 바처럼 기존의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朴通事新註新譯>이라는 이름으로 논문의 형식을 빌려 재차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王霞·유재원 등이 <朴通事諺解譯註>라는 제목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5회에 걸쳐 『朴通事諺解』의 총 106개의 단락 가운데 현재까지 제37단락까지만 발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에 후속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한 朝鮮朝 崔世珍의 『朴通事諺解』를 비롯한 근래에 이루어진 선행 연구의 많은 부분이 미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서, 즉 朝鮮朝 崔世珍의 諺解書에서부터 최근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후속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축적이 되어야 보다 완벽한 『朴通事』에 대한 譯註書가 완성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다.

이에 본 譯註 연구는 1973년 亞細亞文化社에서 影印(百部限定版)한 판본을 底本으로 하였고, 汪維輝,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中華書局, 2005年)에 수록되어 있는 點校本 《朴通事諺解》 漢語本을 참고하여, 다음의 원칙으로 譯註를 하였다.

- 1) 《朴通事諺解》의 漢語文에 대한 번역과 주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諺解文과 夾註를 참고하기로 한다.
- 2) 諺解文은 신지 않고, 夾註는 本文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필요한 전부 또는 부분을 【夾註】라고 명기하고 註釋으로 처리하였다.

4) 王霞·유재원 등이 연재 형식으로 발표되고 있는 <朴通事諺解譯註>는, 총 10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朴通事諺解》의 내용 가운데, 현재까지 제37단락까지만 발표되고 있다. <朴通事諺解譯註(1)>은 제1단락에서 제6단락까지, <朴通事諺解譯註(2)>는 제7단락에서 제13단락까지, <朴通事諺解譯註(3)>은 제14단락에서 제20단락까지, <朴通事諺解譯註(4)>는 제21단락에서 제30단락까지, <朴通事諺解譯註(5)>는 제31단락에서 제37단락까지이다.

- 3) 《朴通事諺解》에는 ‘話者’의 구분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이해와 번역의 편리함을 위하여 原文의 내용을 통하여 ‘話者’의 설정이 가능 한 것은 ‘話者’를 설정하여 나타내고, ‘話者’의 설정이 어려운 것은 筆者가 내용을 분석하여 임의로 ‘甲某’·‘乙某’·‘丙某’로 설정하여 표시했다.
- 4) 106개의 단락을 ‘第106話’로 설정하고, 각 단락의 제목은 내용에 맞추어 필자가 임의로 설정하였다.
- 5) 아래 註 6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朴通事諺解》 漢語本文에 대한 註釋은 現代漢語로 說明하였고, 用例 또한 原文을 그대로 옮겨놓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아래의 註 31번에서처럼 原文을 한글로 번역함에 있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한글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朴通事諺解》는 序文, 本文(상·중·하), 『老乞大集覽(상·하)』, 『單字解』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朴通事新註新譯(一)》⁵⁾의 후속 작업으로, 전체 106개 단락 가운데 제5단락에서 제13단락까지의 本文에 대한 註釋과 翻譯을 신기로 한다.

2. 本文

第5話 治瘡

太醫: 你那腮頰上甚麼瘡?

얼굴 불타지에 무슨 증기입니까?

患者: 不知甚麼瘡。

무슨 증기인지 모르겠습니다.

5) <朴通事新註新譯(一)>, 《中國學論叢》 第33輯, 2011.

太醫：從⁶⁾幾時出來？

언제 생겼지요?

患者：從前日個⁷⁾出來，痒的當不得。

엇그제 생겼는데,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太醫：這們⁸⁾時⁹⁾，不碍事¹⁰⁾，容易醫他。不須貼膏藥，有個法度¹¹⁾便好了。

그렇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약을 붙이 필요가 없고, 간단한 방법으로 낫게 할 수 있습니다.

患者：太醫¹²⁾哥，你教與我這好法兒。

의원님, 저에게 그 비법을 알려 주세요.

太醫：將指頭那¹³⁾瘡口上，着¹⁴⁾唾沫¹⁵⁾白日黑夜不住的搽¹⁶⁾，那們¹⁷⁾時便消了。

6) 從：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從”字結構表示時間的起點。西漢以前，特別是在先秦漢語裏，用例罕見。但是到東漢時期，這樣的例子就是比較常見的了。…到近代漢語裏，組合形式趨向多樣化。例如：“弟子僧惟曉從去年十二月一日病，至今年七月，都計八個月病。”（《入唐求法巡禮行記》，150頁）」（山東教育出版社，2000年，頁345。）

7) 個：估量某種光景之辭，等於價或家。從前則曰年時個，昨日則曰昨日個，今日則個今日個。《麗春堂》劇三：「昨日個深居華屋，今日個流竄荒墟。」（張相《詩詞曲語辭匯釋》，上海古籍出版社，2009年，頁306。）按，前日個，則前天。

8) 這們：此等，這種。《清平山堂話本·快嘴李翠蓮記》：「吟得詩，做得對，經商買賣這般會。這們女婿要如何？愁得苦水兒滴滴地。」（許少峯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369。）

9) 時：用作語氣間歇之詞，猶現代漢語中“呵”或“啊”字。《拜月亭》一【金盞兒】：「怕不問時，權做弟兄；問着後，道做夫妻。」（顧學頌 王學奇《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頁351。）呵，語助辭，相當於“時”，多用在假設分句後。按：類似現代漢語的“（要是）…的話”。拙稿《中國學論叢》（25輯），《黃鶴樓》一折白：「玄德公也，若你不來時，萬事罷論；若來呵，便插翅也飛不過大江去。」用在條件復句的前一分句末尾，表示假設、原因、條件等。元曲選《謝天香》四折：「若是這般呵，功名成就多時了。」

10) 碍事：防事，誤事。《水滸傳傳》第五六回：「西寧聽罷，心中想道：“既有主坐，必不碍事。”」（許少峯編，前揭書，頁10。）

11) 法度：本領；手段。《獨角牛》二白：「娘也，打殺我也！法度利害，禍不是好惹的。」

12) 太醫：古代宮廷中掌管醫藥的官員。宋元以後用為對一般醫生的敬稱。

13) 那：同“挪”。移動位置、時間。明·徐光啓《農政全書》卷三一：「那表為裏：左捲者，卻右捲；右捲者，卻左捲。」石聲漢校註：“那”字解作“移”，今日寫作“挪”。（《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4) 着：把，用。元·朱凱《黃鶴樓》第三折：「這廝好無禮也，他着言語譏諷我。」（許少峯編，前揭書，頁2452。）

15) 唾沫：唾液。

16) 搽：塗抹。

17) 那們：就“那麼”。們，用於指示代詞大祀之後，用同“麼”。《龍圖耳錄》第八十回：「小人也不至

손가락을 종기에 대고, 침을 아침저녁으로 계속 바르면, 그렇게 하며 곧 사라질 것입니다.

患者: 眞個¹⁸⁾好法兒, 太醫哥不說時¹⁹⁾, 却怎麼知道? 常言道: 話不說不知, 木不鑽不透。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알았겠습니까? 옛말에 “話不說不知, 木不鑽不透(말은 하지 않으면 모르고, 나무는 뚫지 않으면 뚫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第6話 買段子

甲某: 拜揖, 哥哥, 那裏去來?

안녕 하십니까! 형님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乙某: 角頭²⁰⁾買段子²¹⁾去來。

저작거리에 비단을 사러 갔었네.

甲某: 你將²²⁾來我看, 這的²³⁾幾托²⁴⁾?

於那們下作, 他登高爬梯, 耽驚受怕, 得的賞, 小人也忍分他的?」(許少峯 編, 前掲書, 頁1386。)

18) 眞個: 就“眞”。個, 估量某種光景之辭, 等於價或家。凡眞則曰眞個。韓愈《盆池》詩: 「老翁眞個似童兒, 汲水埋盆作小池。」(張相, 前掲書, 頁305。)

19) 時: 用作語氣間歇之詞, 猶現代漢語中“呵”或“啊”字。同前註 9)

20) 角頭: 集市。元·無名氏《謝金吾》三折白: 「如今朦朧奏過聖人, 將他兩個押赴市曹殺壞了。…來到這角頭上鬧市中。」(劉堅·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頁139。)
【夾註】《音義》云: 東南西北往來人烟湊集之處。今按, 角頭即通達達道要會之衝, 備力求直之人叢集之所。然漢俗呼市塵亦曰角頭, 謂飯市者必指角頭而去, 故云爾。(同前 第3話 註10)

21) 段子: 緞子。《水滸傳》二回: 「史進并太公苦留不住, 只得安排一個宴席送行, 托出一盤兩個段子, 一百兩花銀謝師。」(吳士勛·王東明 主編, 《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 陝西教育出版社, 1992年, 頁262。)

22) 將: 拿。《元典章·戶部六》: 「若將這裏來呵, 費了頭口氣力, 費了腳錢有。」

23) 這的: 這, 這個。《元典章·台綱一》: 「奉聖旨: 這的休疑惑者。恁根底勾當的人每, 您根底不商量了呵, 休與者。」(劉堅·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頁421。)

24) 托: 長度單位。成人兩臂左右平伸時兩手之間的距離。《元典章·工部一》: 「議得繫官緞匹例,

제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몇 발입니까?

乙某: 滿²⁵七托。你猜的²⁶麼?

전부 일곱 발일세. 어떤 비단인지 맞춰 볼 수 있겠는가?

甲某: 我猜。這的大紅綉五爪蟒²⁷龍, 經緯合線結織, 上用²⁸段子。不是諸王²⁹段子, 也不是常行的。不着十二兩銀子, 買不得他的。咳, 眞個好標致³⁰,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진홍색의 오조용(五爪龍)³¹ 무늬가 수놓아지고, 날실과 씨실이 조화를 이뤄 잘 짠 것으로 보아, 御用的 비단입니다. 諸王의 비단이 아니고, 또한 日常的³²인 것도 아닙니다. 은 열두 냥을 들이지 않고서는, 이런 비단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 정말 곱습니다.

乙某: 便³³猜着了。

바로 맞추셨습니다.

甲某: 你說甚麼話, 好物不賤, 賤物不好。

무슨 말씀이십니까? 좋은 물건은 싸지 않고, 값싼 물건은 좋지가 않습니다.

織造幅闊一尺四寸, 長五托之上。」(劉堅·江藍生 主編, 上揭書, 頁326.)

25) 滿: 全部, 統統. 遍, 整個.

26) 的: 同“得”. 動詞後綴.

27) 蟒: 【夾註】大蛇也. 蟒龍, 謂無角龍也. 元制, 五爪二角龍爲文者, 止供御用, 不許下人穿用.

28) 上用: 猶御用. <紅樓夢>二八回: 「大紅妝緞四十匹, 蟒緞四十匹, 各色上用紗一百匹.」

29) 諸王: 衆王. 唐·韓愈<順宗實錄一>: 「還至別殿, 諸王親屬進賀.」

30) 標致: 美麗, 漂亮. 明·陸采<懷香記>第九出: 「官人, 不教你天生這般標致, 有個人想你, 待來通信.」(許少峯 編, 前揭書, 頁110.)

31) 原文 ‘五爪蟒龍에 대한 <中國歷代服飾大觀>에는 「蟒과 龍은 비슷한데, 밭뿔(爪)에서 구분한다. 龍은 밧뿔이 다섯이고, 蟒은 네 개다. 明代에서는 오직 황제와 황족들만이 五爪龍紋의 옷을 입을 수가 있었는데, 明 後期에 와서는 權臣들도 五爪龍紋의 의복을 착용하였는데, 그러나 蟒龍(망용)이라고 하였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蟒與龍相似, 惟獨爪有所不同. 龍은 五爪, 蟒은 四爪. 明朝只有皇帝和其親屬可穿 五爪龍紋服, 明朝後期有的重臣權貴也穿 五爪龍衣, 但稱爲“蟒龍”.)

32) 原文의 ‘常行’에 대한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에서는 ‘指平時的行爲準則’, ‘日常實行’, ‘平常的行爲’, ‘平時出行’ 등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특별하지 않은’, ‘흔히 있는’ 등의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 便: 即刻. 藏本<看錢奴>四【鬪鶴鶩】: 「積善의 長生, 造惡의 便死.」(劉堅·江藍生主編, 前揭書, 頁23.)

第7話 打刀子

甲某: 快³⁴⁾打刀子的匠人那裏有? 我打一副³⁵⁾刀子。

칼 잘 만드는 대장장이가 어디 좀 없겠습니까? 내 칼이나 한 벌 만들까 합니다.

乙某: 有名的張黑子³⁶⁾, 打的好刀子, 着³⁷⁾他打不得。你打時³⁸⁾怎麼打?

유명한 張黑자가 칼을 잘 만드는데, 그 사람을 시켜야겠지요?³⁹⁾ 칼을 만든다면 어떤 칼을 만들려고요?

甲某: 起線花梨木⁴⁰⁾鞘兒⁴¹⁾、鹿角口子⁴²⁾、駝骨底子⁴³⁾、梁兒、束兒打的輕妙⁴⁴⁾着。紫檀把兒, 象牙頂兒, 也走線⁴⁵⁾。

줄선⁴⁶⁾을 조각해 넣은 화리목(花梨木)⁴⁷⁾ 칼집에, 사슴뿔로 주둥이를

34) 快: 能, 善於。元·白仁甫, 《梧桐雨》第四折: 「這待詔手段高, 畫的來沒半星兒借錯, 雖然是快染能描, 畫不出沉香亭畔回鶯舞, 花萼樓前上馬嬌, 一段兒妖嬌。」(許少峯 編, 前揭書, 頁1069.)

35) 副: 量詞; 猶“套”。

36) 張黑子: 黑色的痣。【夾註】張, 姓。黑子, 痣也。張之面有痣, 因為號, 人號為“張黑子”。

37) 着: 教, 命。元·缺名《陳州糶米》四折: 「則俺那勢劍如風快, 你死也應該, 誰着你金鎗當酒來。」(許少峯 編, 前揭書, 頁2452.)

38) 時: 同前註 9)

39) 原文“不得”의 일반적인 용법은 現代漢語에서 같이 動詞 뒤에 오는 경우, ‘不能, 不可’의 의미를 가지므로, 전체적으로 “그에게 칼을 만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번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不得”을 ‘非~不可’ 문형의 ‘不可’의 誤寫가 아닌가 보았다. 또는 아래의 用例에서처럼 高近代漢語에서 ‘不’ 語氣를 고르거나 強調하기 위하여 조사로 쓰이는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漢語大詞典》卷一: “不, 助詞。無義。用以足句或加強語氣。《詩經·小雅·車攻》: “徒御不驚, 大庖不盈。”毛傳: “不驚, 驚也; 不盈, 盈也。”《敦煌變文集·廬山遠公話》: “你若在寺舍伽藍, 要念即不可, 今況是隨逐於話, 爭合念經?” 蔣禮鴻通釋: “‘要念即不可’, 就是‘要念即可’。”(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

40) 花梨木: 一名“花欄”, 其木紋有若鬼面者, 亦類狸斑, 又名“花狸”。老者紋拳曲, 嫩者紋直。木結花紋圓暈如錢, 色彩鮮艷, 紋理清晰美麗, 可做家具及文房諸器。

41) 鞘兒: 裝刀、劍的套子。

42) 口子: 有容積의 器物的 通外面的 地方。按, 此指“刀鞘口子”。

43) 底子: 花紋圖案的襯托面。

44) 輕妙: 輕便; 輕巧。宋·李上交, 《近事會元·婦人線靴線鞋》: 「開元以來, 例著線鞋, 取輕妙便於事。」

45) 走線: 應是“起線”。“走”爲“起”字之誤寫。參看後註 46)

46) 原文의 ‘起線’은 입체적인 효과나 아름다운 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형체(모형)의 선을 따라 입체적으로 조각되어진 줄(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 전통 帛상(사각 또는 원형)의

마감하고, 칼집은 駝骨로 상감을 하고⁴⁸⁾, 마루쇠와 묶음쇠⁴⁹⁾는 정교하게 박아 넣어야겠지요. 자단목(紫檀木) 칼자루와 상아로 머리를 댄 부분도 선을 넣을까 합니다.

乙某: 着⁵⁰⁾甚麼鐵頭打?

무슨 쇠로 만들 것입니까?

甲某: 不要別樣鐵, 着鑢鐵⁵¹⁾打。刀兒不要忒厚了, 脊兒平正着。

다른 쇠는 필요 없고, 빈철(鑢鐵)을 서서 만들어야겠습니다. 칼날은 너무 두껍지 않게 하고, 등은 곧게 뺀 일직선의 모양으로 할 것입니다.

乙某: 你打幾件⁵²⁾兒?

몇 종류나 만드시게요?

甲某: 大刀子一把, 小刀子一把, 叉兒一個, 錐兒一個, 鋸兒刀子一個, 鋸兒上鉞⁵³⁾一個好花樣兒, 買將⁵⁴⁾條兒來帶他。

큰 칼 한 자루, 작은 칼 한 자루, 쇠꼬챙이 한 개, 툇칼 하나, 툇칼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조각된 선(줄)이 '起線'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黃花梨起線三足素面筆筒」, 「起線小盒, 黃花梨起線炕桌, 料爲軟木, 起線漂亮, 底板有細裂。」 등의 문구는 골동품을 소개하는 책자에서 볼 수 있는 설명인데, '起線'은 물건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隆起線을 말한다.

47) 原文의 '花梨木'은 모과나무 목재를 말함이다. 모과나무는 재질이 붉고 치밀하며 광택이 있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단단하여 고급가구의 가구재로 쓰여 '화류목', '화리목' 등으로 불렸다.

48) 原文 '駝骨底子'는 '화리목으로 만든 칼집에 낙타 뼈로 상감을 한 바탕'으로, 예쁜 무늬가 장식된 칼집을 말하는 것이다. 금은보화나 조가비 등으로 무늬를 넣어 만든 전세공(細工)의 일종이다. '駝骨'을 象嵌의 재료로 사용된 설명을 漆器제작에 대해 설명한 책자에서 찾을 수 있다. 《漆藝》: 「這幅屏風, 用紫檀木做框架并有雕花、朱紅色的漆底子上, 用各種珍寶美玉, 象嵌成… 角骨, 牛角、牛骨、駝骨等, 均可用於象嵌。獸骨的加工方法是, 先將其破成兩片, 加石灰與石城放在鍋裏蒸煮, 以去其油分, 再加工爲薄片, 即可使用。魚殼、玳瑁也可用。」(인터넷 百度에서 발췌)

49) 原文 '梁兒、束兒'에 대해서 諺解는 '마루쇠(마루쇠)와 못금쇠(묶음쇠)'로 풀이하고 있다.

50) 着: 把, 用. 元·朱凱, 《黃鶴樓》第三折: 「這斯好無禮也, 他着言語譏諷我。」(許少峯 編, 前掲書, 頁2452.)

51) 鑢鐵: 古代的一種鋼, 把表面磨光再用腐蝕劑處理, 可見花紋, 又稱'賓鐵'。【夾註】《總龜》云: 出西番, 面上自有旋螺花者, 有芝麻花者, 凡刀劍器打磨光淨, 價過於銀, 鐵中最利者也。

52) 件: 量詞, 猶'樁'、'種'。

53) 鉞: 用金銀等在器物上嵌飾圖案和文字。

54) 將: 語義虛化, 置於單音節動詞之後, 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 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 殺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멋진 문양을 새기고, 끈을 사다가 맬까 합니다.

乙某：你這五件兒刀子，這般打的可喜⁵⁵乾淨⁵⁶時，三錢銀子打的⁵⁷。如今張黑子家裏去來。

이 다섯 가지 칼을, 이렇게 사람 맘에 썩 들고 산뜻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은 삼전(三錢)은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張黑子 집으로 갑시다. 張舍⁵⁸, 你來。咱這官人要打一副刀子, 好生細詳。這五件兒刀子, 你用心下功夫打。

張씨는 이리와 보시오. 우리 이 어른이 칼을 한 벌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매우 꼼꼼하시네. 이 다섯 종류의 칼들을 심혈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게나.

黑子：這的你不須說，越細詳越好。我也用心做生活⁵⁹。

그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섬세하면 섬세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전 심혈을 기우려서 물건들을 만들 것입니다.

第8話 放空中

甲某：街上放空中⁶⁰的小廝⁶¹們好生⁶²廣⁶³。

55) 可喜：可愛，令人喜愛。元·關漢卿，《魯齋郎》楔子：「他是個銀匠，姓李，排行第四，他的個渾家生的風流，長的可喜。」(許少峯 編，前揭書，頁1044.)

56) 乾淨：齊整，周正。《紅樓夢》第二七回：「鳳姐打量了一回，見他生的乾淨俏麗，說話知趣。」(許少峯 編，前揭書，頁605.)

57) 的：同“得”。用作動詞後綴，表示對該動作的肯定。有“到”了“成”。《初刻拍案驚奇》第二九卷：「欲待依韻答他，因是年底，匆匆不曾做得，竟無回信。」(許少峯 編，前揭書，頁412.)

58) 舍：宋元時稱貴顯子弟爲“舍人”。也簡稱“舍”。《救風塵》一白：「自家鄭州人氏，周同知的孩兒周舍是也。」(劉堅·江藍生 主編，前揭書，頁281.) 【夾註】王公大人之家必有舍人，即家臣也。如本國伴僮之類，爲權勢倚任之人，貧賤之所羨慕者，故街巷呼親職爲張舍、李舍，乃一時推敬之稱。又《質問》云：無職官下閑人爲之舍人。

59) 生活：指手工製品。《元典章·戶部八》：「令各處鋪戶之家，長現在鐵器生活須管立限發賣了畢。」(劉堅·江藍生 主編，前揭書，頁285.)

60) 放空中：應是“放空鐘”，俗稱“抖空竹”，也叫“空箏”。就是“玩空竹”。【夾註】空中，《音義》云：用檀木旋圓，內用刀子剗空，以繩曳之，在地轉動有聲。《音義》云：頑童將葫蘆用木釘串之，

골목마다 죽방울⁶⁴) 돌리는 아이들이 무척이나 많군!

乙某: 如今這七月立了秋, 祭了社神⁶⁵), 正是放空中的時節。八月裏⁶⁶)却⁶⁷)放鶴兒⁶⁸)。

지금은 칠월로立秋가 지나고, 土地神⁶⁹)에게 드리는 제사도 끝나, 죽방울 놀이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팔월에는 연⁷⁰)을 날리지요.

甲某: 有幾等⁷¹)鶴兒?

傍作一眼, 以繩繫址, 旋轉有聲, 亦謂之空中。

- 61) 小厮: 男孩, 兒童。元·白仁甫, 《牆頭馬上》: 「自離洛陽, 同小姐到長安七年也, 得了一雙兒女, 小厮叫做端端, 女兒喚做重陽。」(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 團結出版社, 1997年, 頁1265.)
- 62) 好生: 十分, 非常。《元朝秘史》卷一: 「那三個人的顏色好生不善, 必害了你姓名。」(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年, 頁380.)
- 63) 廣: 多, 衆。元·高文秀, 《黑旋風》第一折: 「泰安神州謊子極多, 哨子極廣, 怎生得一個護臂跟隨將我去方可。」(許少峯 編, 前揭書, 頁689.)
- 64) 原文의 '放空中'은 '放空鐘' 또는 '玩空竹'이라고 불리는 '죽방울 놀이'이다.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중국식의 '요요'놀이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죽방울 놀이'는 장구 모양으로 조그맣게 나무로 깎아 죽방울을 만들고 2척 쯤 되는 가는 나무 2개에 줄을 연결하여 만든 죽방울채로 죽방울을 감아 이리저리 돌리거나 공중으로 던져 채로 받는 등의 묘기를 연출하는 놀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다음 두 가지의 설명을 볼 수 있는데, 本文中에서 말하는 '죽방울 놀이'는 (2)번에 속하는 것이다: 「(1) 장난감의 하나. 장구 모양의 작은 나무토막에 실을 걸어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받았다 하며 논다. (2) 주머니 끈을 치는 데 쓰는 계구. 나무나 흙으로 장구 바퀴처럼 만든 것으로 실 가닥 끝에 달아서 이리저리 돌린다.」
- 65) 社神: 土地神。【夾註】立春後第五戊爲春社, 立秋後第五戊爲秋社。《孝經緯》云: 「社, 土地之主也。土地闢, 不可盡祭, 故封土爲社, 以報功也。春祭社, 祈穀之生; 秋祭社, 報穀之成。」(後略)
- 66) 裏: 在此作表示時間的助詞。《董西廂》卷一: 「病裏逢春, 四海無家, 一身寄客。」
- 67) 却: 就, 便。《警世通言》第二八卷: 「次日早起。叫將和看着家裏, 却來到針子橋李克用家, 把前項事情告訴了一遍。」(許少峯 編, 前揭書, 頁2562.)
- 68) 放鶴兒: 應是「放鴿子」。鴿子是風箏的俗稱。古時謂之「鳶」。【夾註】鶴兒, 卽「紙鳶」。今漢俗呼爲「風箏」, 亦曰「風禽」, 又號「紙鶴兒」。《質問》云: 風旗也, 乃小兒三月放爲風箏, 八月放爲紙鶴也。
- 69) 原文의 '祭社神'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지내는 제례(祭禮)를 말함이다. 우리 朝鮮時代에는 천(天)·지(地)·인(人)에 대한 국가의 제례로 원구제(圓丘祭)·사직제(社稷祭)·종묘제(宗廟祭)가 있다. 그중 사직제는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社神)과 농작의 풍년을 좌우하는 곡식의 신인 직신(稷神)에게 드리는 제례로, 궁중제사(宮中祭祀) 중 대사(大祀)에 속하여 사직대제(社稷大祭)이다.
- 70) 原文 '放鶴兒'는 '연(鳶)' 또는 '연을 날리다'의 의미로 풀이된다. 연(鳶)의 學名은 '風箏'이고, '鳶'과 '鶴'의 발음이 유사한 관계로 方言에서 '放鳶子'를 '放鶴子'로 부르고 있다.
- 71) 等: 樣, 類。一等, 卽「一種, 一類」。《來生債》: 「有一等寒儉的泛泛之徒, 他出來的不誠心。」

연은 몇 종류나 되지요?

乙某: 鵝老翅鶴兒、鮎魚鶴兒、八角鶴兒、月樣鶴兒、人樣鶴兒、四方鶴兒, 有六、七等鶴兒。八月秋風急, 五六十托⁷²⁾粗麻線也放不勾。九月裏打擡⁷³⁾, 耍鶴鶉⁷⁴⁾, 鬪促織兒⁷⁵⁾。十月裏騎竹馬⁷⁶⁾, 一冬⁷⁷⁾裏踢建子⁷⁸⁾。開春時, 打毬兒⁷⁹⁾, 或是博⁸⁰⁾錢⁸¹⁾拿錢⁸²⁾。

거위모양의 연, 매기 연, 팔각 연, 달 모양의 연, 사람 모양의 연, 사방 연, 한 일곱 여덟 종류의 연이 있습니다. 팔월의 가을바람이 세차서, 오락십 발의 굵고 긴 실도 모자랍니다. 구월은 자치기(打抬)와 닭싸움 그리고 귀뚜라미 싸움이 제격입니다. 시월은 죽마타기, 겨울에는 제기차기입니다. 봄이 되면 축국(蹴鞠)⁸³⁾놀이 또는 투전⁸⁴⁾놀이를 합니다.

(劉堅·江藍生 主編, 前掲書, 頁74.)

- 72) 托: 長度單位。成人兩臂左右平伸時兩手之間的距離。《元典章·工部一》:「議得繫官緞匹例, 織造幅闊一尺四寸, 長五托之上。」(劉堅·江藍生 主編, 前掲書, 頁326.)
- 73) 打擡: 民間遊戲之一種。一般是兩個人玩。每人有幾根棍, 先劃兩條橫線, 參加者可在兩頭線中間站好, 都向空中扔棍子。落下來的棍子可朝線外打, 只打一下, 若將別人的小棍打出線去, 就算贏了, 如打不出去的, 別人再打你的小棍, 誰打出去就是贏者。【夾註】《音義》云: 杭州小兒之戲也。用小圓木長三四寸, 各持一塊, 彼此相擊, 出限者爲輸。
- 74) 耍鶴鶉: 卽鬪鶴鶉。亦稱冬興、“鶴鶉圈”等。據史料記載:「舊時漢族民間鬪鶴鶉是娛樂活動, 流行於全國各地。每年初冬進行。始於唐玄宗時代。西涼人進獻的鶴鶉, 能隨金鼓節奏爭鬪, 宮中多飼養鶴鶉取樂。因北方是在冬季斗鶴鶉, 卽稱冬興」。鬪時, 先貼標頭分籌碼, 然後捉對相鬪。每鬪一次稱一圈, 故又稱“鶴鶉圈”。
- 75) 促織: 蟋蟀的別稱。亦稱趨織、“吟蛩”、“蚰蚩兒”。蟋蟀, 因其能鳴善鬪, 自古便爲人飼養。
- 76) 竹馬: 兒童遊戲時當馬騎的竹竿。
- 77) 一冬: 整個冬天。作者未詳, 敦《敦煌變文·燕子賦(乙)“一冬”、“獨春鳥”和“欲無常”試解》。摘自“百度搜索”之“佛教導航”頁。
- 78) 踢建子: 卽踢毬子, “毬子”, 也叫“打鷄”。古代文人也稱“燕子”。
- 79) 打毬兒: (1) 打毬: 古代軍中用以練武的一種馬上打球遊戲。亦有徒步打球的。(2) 卽蹴鞠: 古代的一種踢球遊戲。前蜀·花蕊夫人, 《宮詞》之一四六:「殿前鋪設兩邊樓, 寒食宮人步打毬。」按, “打毬兒”此應是“蹴鞠”而言。蹴鞠又名蹋鞠、“蹴球”、“蹴圓”、“筑球”、“踢圓”等, “蹴”卽用脚踢, “鞠”繫皮制的球, “蹴鞠”就是用脚踢球。【夾註】《質問》云: 作成木圓毬二介, 用木杓一上一下連接不絕, 方言謂之打毬兒。《質問》所釋, 疑卽本國優人所弄杓鈴之戲, 與此節小兒之戲恐或不同。詳見下卷《集覽》。
- 80) 博: 古同“博”。博, 以財物作注以賭輸贏。
- 81) 博錢: 【夾註】《質問》云: 兩人賭錢, 將八文錢捏在手指, 擲地於地, 有八背, 謂之八八, 有七字, 謂之七七, 此是爲勝; 無八八、七七, 此是爲輸。
- 82) 拿錢: 【夾註】卽猜拳野。쌍불잡기。《質問》云: 此二人以錢相賭之戲, 跌過兩背, 相同爲贏。《質問》之釋, 若本國돈뺑기。
- 83) 原文의 ‘打毬兒’는 위의 註釋의 설명대로 말을 타고 하는 ‘擊毬’가 있고, 남너노소가 가족의

甲某：一夏裏藏藏昧昧⁸⁵⁾。咳，小廝們倒⁸⁶⁾聒噪⁸⁷⁾，按⁸⁸⁾四時耍子⁸⁹⁾。

여름은 그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⁹⁰⁾ 아이고! 그런데도 어린아이들은 동네방네 떠들고 난리를 치고 다니고, 사계절 내내 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第9話 廂金帶

甲某：你那金帶⁹¹⁾是誰廂⁹²⁾的?

그 금대(金帶)는 누가 상감한 것이오?

革匠：是拘欄⁹³⁾胡同⁹⁴⁾裏帶匠夏五廂的。

구란(拘欄) 골목의 띠를 만드는 장인(匠人)인 하오(夏五)가 상감을 했습

로 쓴 공을 차는 '축국(蹴鞠)'라는 놀이가 있다. 본문의 '打毬兒'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축국(蹴鞠)으로 보았다. '蹴鞠'의 또 다른 이름은 격구(擊毬), 타구(打毬), 기구(氣毬), 백타(白打), 척국(踢鞠), 답국(蹋鞠), 축구(蹴毬, 蹴球) 등이다.

84) 原文의 '博錢拿錢'에 대해 '협주의 설명으로 보아 동전으로 숫자 등을 맞춰 돈을 따는 놀이로 보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다.

85) 昧昧：無聲無息。明·歸有光，《項脊軒志》：「方二人昧昧於一隅也，世何足以知之。」

86) 倒：反而。《三遂平妖傳》第七回：「我欲對把卜吉償那婦人的命，曾奈尸首又無獲處，倒將金鼎來獻我，如何是好?」(許少峯 編，前掲書，頁407.)

87) 聒噪：喧吵，叫鬧。

88) 按：依照，遵循。

89) 耍子：玩兒，玩耍。

90) 原文의 '藏藏昧昧'는 '더위서'숨죽이며 조용히 지내다'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昧昧'는 '어둡다', '혼란스럽다'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앞의 註釋 85)번에서 설명한 바처럼 '조용히 소리 없이'의 의미도 가지므로, 이에 문맥으로 보아 '여름은 더위 조용히 지내다'의 의미로 본 것이다.

91) 金帶：金飾의 腰帶。古代帝王、后妃、文武百官所服腰帶，有革金、玉、銀等差別，其制度各代不同，亦多變易。

92) 廂：“鑲”의 假借字。明·賈仲明，《金安壽》第二折：「我這頭巾上珍珠砌成文藻，玉兔鵲金廂繫綉袍。」(許少峯 編，前掲書，頁207.)

93) 拘欄：又作勾欄或構欄，宋代勾欄多同瓦市有關。瓦市，又名瓦舍、瓦肆或瓦子，是大城市裏娛樂場所的集中地，也是宋元戲曲在城市中的主要表演場所，相當於現在的戲院。明代以後，又把妓院稱作勾欄。【夾註】《書言故事》云：鈎欄，俳優棚也。(中略)今按，北京有東拘欄、西拘欄。俗謂宿娼者曰院裏走。《質問》云：是京師樂工住處。

94) 胡同：同“衚衕”。

니다.

某甲: 革廷 95)帶忒96)長了, 你饋我趨97)短些. 多少分兩98)?

내 허리띠가 너무 긴 것 같소, 좀 짧게 줄여주세요. (그런데)금은 얼마나 들었소?

革匠: 五兩金子廂的.

금 다섯 냥으로 상감을 했습니다.

某甲: 那三台99)板兒100)做得好, 南斗六星101)板兒做得忒圓了些, 左輔右弼板兒和兩個東兒欠102)端正些. 後面北斗103)七星板兒做的好, 那雀舌兒牢壯便好. 他要多少工錢?

三台星104)의 띠돈105)은 잘 만들었는데, 南斗六星106)(띠돈)은 너무 등

95) 革廷: 同“鞞”. (1) 腰帶의 帶身. (2) 腰帶, 皮帶.

96) 忒: 太.

97) 趨: 〈方言〉縮, 尙拉.

98) 分兩: 一分一兩. 謂分量, 輕重.

99) 三台: 【夾註】星名. 在天爲六座, 名千階, 亦曰泰階, 太上升降之道也. (後略)

100) 板兒: 此作腰帶之“帶板”, 也就是用金玉等材料所雕的腰帶紋飾板而言. 玉雕琢謂之玉板.

101) 南斗六星: 星名. 卽斗宿, 有星六顆. 在北斗星以南, 形似斗, 故稱. 【夾註】南極老人, 星名. 曰天府, 曰天相, 曰天梁, 曰天童, 曰天樞, 曰天機. (後略)

102) 欠: 缺少.

103) 北斗: 【夾註】北斗, 凡九星… 左輔, 連附北斗第六星, 在外; 右弼, 連附北斗第二星, 在內. 具在紫薇垣. 七現二隱, 世人惟見七星, 不見輔弼二星. (後略)

104) 원문의 三台는 ‘三台星’으로, 큰곰자리에 있는 자미성을 지키는 별로, 각각 두 개의 별로 된 상태성(上台星), 중태성(中台星), 하태성(下台星)으로 이루어져 있다.

105) 原文의 ‘板兒’는 띠(腰帶)의 金銀玉등으로 만들어 부착한 장식, 즉 과대(鈎帶)·포대(布帶)·혁대(革帶)의 표면에 붙인 ‘띠돈(땃돈)’을 말함이다. 다음은 과대(鈎帶)에 대한 ‘네이버 백과사전 과대(鈎帶)’에서 발췌한 것으로 本文의 ‘板兒’와 ‘金帶’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인용하였다. 「과대(鈎帶)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하였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복대(官服帶)도 이에 속한다. 한국 복식 고유의 띠인데, 원래가 북방계 호복(胡服)의 특징적인 양식이므로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鈎帶의 기법은 중국 육조(六朝)에서 전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띠돈’의 소재에 따라 금대(金帶)·옥대(玉帶)·석대(石帶)·서대(犀帶)·각대(角帶) 등으로 부르며, 소재와 수에 따라 계급을 나타낸다. … 현재 남아 있는 실물은 요패(腰佩)의 한 벌을 이루는 금관총(金冠塚) 출토의 금제 과대와 요패(5~6세기)가 대표적인 것으로, 교구를 합친 총길이 162 cm에 40장의 순금 ‘띠돈’이 달려 있다. 금판(金板)을 오려서 만든 ‘띠돈’은 직사각형판과 밑에 달린 심엽형(心葉形)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당초(唐草) 무늬와 조두괴운(鳥頭怪雲) 무늬를 투조하여 작은 못으로 고정하였으며, 금실로 매단 영락(瓔珞) 장식이 있다. … 《당서(唐書)》 <이정전(李靖傳)>에 “옥대 13과(玉帶十三鈎)를 사여했는데, ‘띠돈’마다 고리를 붙이고 쇠붙이로 고정하였다(鈎各附環以金固之)”라고 한 것은 신라 과대의 모양과 일치하며, 4

글고, 左輔右弼(뫏돈)¹⁰⁷과 두 개의 뫏금쇠¹⁰⁸)는 약간 端雅하지 못하고, 뒤쪽의 북두칠성(뫏돈)¹⁰⁹은 잘 만들었고, 헛쇠¹¹⁰)는 튼튼해서 딱 좋습니다. 품삯은 얼마나 달라고 하겠소?

草匠: 要一兩銀子。

은자(銀子) 한 냥은 달라고 할 것입니다.

某甲: 若廂的好時¹¹¹), 也不打緊¹¹²). 你明日領我去, 做一條銀廂花帶。

세기경 동진(東晉)시대 고본에서 출토된 과대도 같은 것이다. 과대는 수(隋)와 당(唐)에서도 습용되었으므로 관복의 일부로 제도화한 것이다. 674년(상원 1) 의복령에서는, 3품(品) 이상은 금옥대 13과(鈔), 4품은 금대 11과, 5품은 금대 10과, 6품은 은대 9과, 7~9품은 유석대(鑰石帶) 9과, 서인(庶人)은 동철대(銅鐵帶) 7과로 규정했다. 이러한 과대제도는 당복을 관복으로 습용한 신라 복제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흥덕왕(興德王) '복식금제(服飾禁制)'의 <요대조(腰帶條)>에 보이는 진골대등(眞骨大等)의 금백옥(禁白玉), 6두품(六頭品)의 오서(烏犀)와 유철동(鑰鐵銅), 5두품의 철은(鐵銀), 4두품의 철동(鐵銅), 서인이 사용한 동철(銅鐵) 등의 소재의 이름은 '뫏돈'과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 볼 때, 本文 '板兒'의 우리말 번역은 '뫏돈'이다. 금이나 옥 따위를 동전(銅錢)과 같이 등글게 하고, 그 '뫏돈'에 각종 문양을 조각하여 띠에 달아 신분과 멋을 나타내는 것이다. '板兒'에 대한 《朴通事諺解》에서는 '돈'으로 諺解되고 있다. '뫏돈'에 대한 네이버 우리말 사전에는 다음 세 가지의 설명을 볼 수 있다. (1) 노리개의 맨 윗부분에 있는 장식품. 금이나 은, 옥 따위로 사각형, 원형, 꽃 모양, 나비 모양 따위를 만든다. (2) 조복(朝服)의 띠에 붙이던 납작한 장식. 품계에 따라 서각(犀角), 금, 은을 썼다. (3) 칼을 차기 위하여 관복(官服)의 띠에 달던 갈고리 모양의 쇠붙이. 本文의 '板兒(뫏돈)'은 (2)번의 '띠에 붙이던 납작한 장식'에 해당된다. 아래는 중국 문헌에서 찾은 '玉帶板(옥 뫏돈)'에 대한 설명인데, '板(兒)'과 '鈔(帶)'에 풀이가 앞의 설명과 같음을 볼 수 있다. 「玉帶是一種由數塊乃至十數塊扁平玉板鑲綴的腰帶, 是古代官品位的標志。(中略)唐代以玉帶入官服, 用以標志官階的高低, 因而帶上的玉板(稱爲帶板)均有一定之規。鑲在帶兩端的圓角矩形帶板叫“鉞(獺)尾”, 中間的方形或長方形帶板叫“鈔”, 有的鈔有孔或附環, 用以懸挂物件。唐代根據帶板的數目來稱帶, 如“十三鈔帶”。(中略)帶鈔由長方形、桃心形、豎條形組成, 另外還有委角長方形和方形帶鈔。(中略)明中期帶有吉祥寓意的圖案開始流行, 帶板上的紋飾幾乎全部轉爲吉祥題材, 如松鶴、麒麟、三羊、百狩等。」(摘自《明代麒麟帶板》, 中國 百度網)

- 106) 原文의 '南斗六星'은 궁수자리에 있는 국자 모양의 여섯 개의 별로, 북두칠성의 모양을 닮은 데서 이름이 유래한다. 장수(長壽)를 주관하는 별로 전해진다.
- 107) 原文의 '左輔右弼'은 별 이름이다. 앞의 註 103)번의 '夾註'를 보면 「北斗七星은 별이 아홉 개인데, 輔弼의 두 별은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 108) 原文 '東兒'에 대해 諺解는 '뫏금쇠'로 풀이하고 있다. '뫏금쇠'는 '쇠테(쇠로 만든 테)'의 옛말이다.
- 109) 큰곰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7개의 별을 총칭하는 말로 그 모양이 국자 모양과 유사하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자리로 여겼다.
- 110) 原文의 '雀舌兒'의 諺解는 '헛쇠'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지는 알 수는 없다. 다만 '雀舌兒'과 같은 '띠를 묶어주는 고리'라는 생각이다.

상감을 잘 한다면, 문제될 건 없지요. 내일 나를 데려다주게나, 내 은으로 상감한 화대(花帶)를 하나 만들어야겠네.

革匠: 我知道¹¹³⁾領你去。

내가 길을 아니 모시고 가지요.

第10話 備錢

甲某: 你今日那裏去?

오늘은 어딜 가지요?

乙某: 我今日印子鋪¹¹⁴⁾裏備¹¹⁵⁾錢去。

오늘 錢鋪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甲某: 把¹¹⁶⁾甚麼去備?

무엇을 가지고 가서 저당을 하시려고요?

乙某: 一對八珠環兒¹¹⁷⁾、一對釧¹¹⁸⁾兒。

111) 若~時: 略同現代漢語的“若是~的話”。參看前註 9)

112) 不打緊: 不要緊, 無關緊要。

113) 知道: 認識道路。晉《搜神記》卷十五:「娥語曰:‘伯文, 我一日誤爲所召, 今得遣歸, 既不知道, 不能獨行, 爲我得一件否?’」

114) 印子鋪: 也叫“印子房”。放印子錢的鋪子。《金瓶梅詞話》第五十回:「一家兒吃穿全靠著奴身一個, 到晚來引子房錢逼的是我。」(許少峯 編, 前揭書, 頁2027。)印子錢是高利貸中的一種形式, 放債人以高利發放貸款, 本息到期一起計算, 借款人必須分次歸還, 因爲每次歸還都要在折子上蓋一印記, 所以人們就把它叫做“印子錢”。【夾註】《音義》云: 是典當錢物濟急之所。《質問》云: 有錢之人開鋪, 那無錢之人拿衣服器皿, 當借銅錢或銀子使用, 每十分加利一分, 亦與有印號帖兒, 以爲執照。

115) 備: 同“當”。用實物作抵押向當舖借錢。《老朴集覽·單字解》:「典: 凡人或缺少口糧, 或遇事用錢者, 以物折直, 立限賣與人爲質, 而求錢取用, 至限償還其直, 取物而還也。《律條疎議》云: “以價易去而原價取贖曰典。”」

116) 把: 拿, 將。明·湯顯祖, 《紫釵記》第五四出:「侯云: 此玉釵價值萬鎰, 怎生把街來?」(許少峯 編, 前揭書, 頁29。)《兒女英雄傳》第五回:「公子便問那老和尚道: ‘這裏到二十八棵紅柳樹還有多遠?’」(許少峯 編, 上揭書, 頁503。)

117) 八珠環兒: 【夾註】귀엇골회。以珍珠大者四顆連綴爲一隻, 一隻共八珠。

118) 釧: 【夾註】《事物紀原》云: 黃帝, 西王母獻白環, 舜亦獻。《通俗文》云: 環臂謂之釧。漢順帝, 有功者賜金釧, 亦曰環釧。

八珠玉環 한 쌍과, 팔찌 한 쌍입니다.

甲某: 那珠兒多¹¹⁹)大小¹²⁰)?

그 八珠玉環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乙某: 圓眼¹²¹)來¹²²)大的, 好明淨。

크기가 龍眼의 열매만 하고, 무척 맑고 깨끗합니다.

甲某: 儻의多少錢?

얼마에 잡힐 거요?

乙某: 儻의二十兩銀子。

스무 냥에 잡힐까 합니다.

甲某: 儻那偌多¹²³)做甚麼? 多儻時多贖¹²⁴), 少儻時少贖。

그렇게 많이 빌려 무엇에 쓸려고요? 많이 잡히면 많이 갚아야 하고, 적게 잡히면 적게 갚으면 되지요.

甲某: 二十兩也不勾, 我典¹²⁵)一個房子裏¹²⁶)。我再把一副頭面¹²⁷)、一個七寶金簪兒、一對耳墜兒¹²⁸)、一對窟嵌的金戒指¹²⁹), 這六件兒儻的¹³⁰)五十兩銀子, 共有二百兩銀子¹³¹), 典一個大宅子¹³²)。

119) 多: 問數目時的用語, 猶多少、若干。

120) 大小: 復詞偏義, 有時偏於大, 有時偏於小, 視說話的場合而定。

121) 圓眼: 柱圓又名龍眼, 俗稱圓眼。【夾註】《音義》云: 龍眼的外名。

122) 來: 用作形容詞尾, 猶般, 樣。將。元·王實甫, 《西廂記》第二本三折: 「昏鄧鄧黑海來深, 白茫茫陸地來厚, 碧油油青天來闊。」(許少峯 編, 前揭書, 頁1091。)

123) 偌多: 這麼多, 如此之多。元·缺名, 《舉案齊眉》第三折: 「癩癩去了也, 虧他送了俺偌多東西。」(許少峯 編, 上揭書, 頁1599。)

124) 贖: 用財物換回抵押品。也作“贖當”。

125) 典: 此作“租”, “賃”。《無聲戲》第八回: 「他又典了一所花園居住, 有廳有堂, 有臺有榭。」(許少峯 編, 前揭書, 頁438。)

126) 裏: 助詞。用在句末, 相當於“哩”、“呢”。

127) 頭面: 首飾, 頭部裝飾品。元·李行道, 《灰闌記》第一折: 「是我不許他再穿衣服, 重戴頭面。」

128) 耳墜兒: 耳飾的一種, 指帶有下垂飾物的耳飾(耳環)。有時耳墜等同於耳環, 又稱“耳墜子”。【夾註】《事文類聚》云: 《莊子》曰: “天子之侍御, 不叉榭, 不穿耳。”則穿耳自古有之, 今俗亦曰耳環, 卽八珠環也。

129) 窟嵌戒指: 【夾註】(前略)今按: 窟嵌者, 指環之背剜空爲穴, 用珠填穴爲飾。《總龜》云: 亦名手記, 所飾玉石乎(呼)爲戒指面。舊本作指纏兒。《音義》云: 窟音왕, 窟是空字之誤。窟音왕, 空音왕。

130) 的: 動詞後綴, 也作“得”。

스무 냥도 부족합니다, 내 집 한 채를 세를 살까 해서요. 머리장식(고갈) 하나와 칠보 금비녀 하나 그리고 귀걸이 한 쌍과 진주 박은 금가락지 한 쌍, 이 여섯 가지를 쉰 냥에 잡힐 수 있으니, 총 은 이백 냥으로, 큰집 한 채를 세 얻을까 합니다.

第11話 洗馬

甲某：背後河裏洗馬去來¹³³。拴¹³⁴在陰涼處，着¹³⁵鉤子刮的乾淨着¹³⁶。一日三遍家¹³⁷，每日洗刷鉤的乾乾淨淨地¹³⁸，等一會兒饋些草吃。黑夜好生¹³⁹用心喂他。懶小廝¹⁴⁰們，一發¹⁴¹滿槽子饋草，睡到明。可憐見¹⁴²，

131) 共有二百兩銀子：【夾註】今觀所典之物，只得七十兩，而云二百兩銀者，蓋舊本云有二百錠鈔，今本改鈔爲銀，仍存鈔之舊數而不改也。

132) 宅子：【夾註】俗總稱家舍曰房子，自稱曰寒家，文士呼曰寒居，自指室內曰屋裏，人稱王公大人之家則曰宅子。

133) 去來：“來”是加強“去”的語氣，即去了，去的。元·白仁甫，《拜月亭》四折：「寡人也怕閑行，不如回家去來。」(許少峯 編，前揭書，頁1556。)

134) 拴：繫，縛住。用繩子繫住。同“綰”。元·孟漢卿，《魔合羅》第一折：「自家李文道便是。開着個生藥鋪，人順口都叫我做賽盧醫。」(許少峯 編，上揭書 頁106。)

135) 着：把，用。元·朱凱，《黃鶴樓》第三折：「這廝好無禮也，他着言語譏諷我。」(許少峯 編，上揭書，頁2452。)

136) 着：此作表肯定的語氣。也作“者”。

137) 家：與“價”同，估量辭。《董西廂》四：「一夜家無眠白日晡。」(參看 前註 7)

138) 地：用於形容詞後，相當於“的”。《水滸全傳》第四九回：「將解珍、解寶剝得赤條條地，背剪綁了，解上州裏來。」(許少峯 編，前揭書，頁412。)

139) 好生：加以，倍加。元·缺名，《延安府》第一折：「大人好生可憐見，我將這一樁事苦苦的大人跟前哀告，必然與我做主。」(許少峯 編，上揭書，頁729。)

140) 小廝：一般籠通地通稱小子，男孩子爲小廝。未成年的男僕人也做小廝。

141) 一發：一起，一並。《水滸全傳》二回：「我家也有頭口驢馬，教莊客牽出後槽，一發喂養。」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1364。

142) 可憐見：猶云可喜也；可愛也；可羨也；可貴可重也。王安石，《過劉貢父》詩：「故知今有可憐人，回首紛紛斗筭窄。」此言見可貴、可重之人，乃知斗筭之人小器也。(張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年，頁604。)見，猶得也；着也。《董西廂》三：「便不辱你爺，便不差見我！」差見，猶云羞着；便不，猶云豈不。按此爲老夫人責鶯鶯語。…然此在曲文中則多作可憐見。…《董西廂》三：「兀可憐見我那里。」…凡云可憐見，猶云可憐得或可憐着也。(張相，上揭書，頁631~633。)按，可憐見，方言俗語，宋元時期的習慣用語，同情的意思。

那不會說話的頭口們喂不到。好生¹⁴³說與小廝們，十個人一宿¹⁴⁴家輪着喂，那們時不渴睡¹⁴⁵。切的草細着，爲頭兒¹⁴⁶只¹⁴⁷半筐兒草，着攪草棍拌饋他些料¹⁴⁸水吃，半夜裏却拌饋他料吃。一夜裏喂到七八遍家，每日這般勤勤的喂時¹⁴⁹，甚麼^ㄱ添不上？

뒤쪽 냇가에 말 씻기러 갑시다. 시원한 곳에 메어 두고, 털을 빗는 솔로 잘 빗겨줘야 합니다. 날마다 세 번씩 매일 씻기고 빗겨줘서 깨끗이 해야 하고, 잠시 좀 기다렸다가(좀 쉬게 한 다음) 여물을 줘야지요. 밤중에는 더욱 마음을 써서 먹이를 줘야 합니다. 게으른 녀석들(하인들)은 한꺼번에 규유 가득 여물을 퍼 담아 놓고는, 아침까지 잠을 자지요. 가없게도 말 못하는 짐승들은 먹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일러 주었습니다. 열 사람이 밤마다 돌아가면서 먹이를 먹이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하면 잠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물을 잘게 썰고, 먼저 이 반 광주리의 여물에, 여물을 버무리는 막대기로 사료를 삶은 물과 버무려서 먹도록 해야 하고, (나중에)밤에 사료를 먹도록 해야 합니다.¹⁵⁰ 이렇게 밤마다 일곱 여덟 번씩, 날마다 이렇게 부지

143) 好生：此作“認真，着着實實”解。《龍圖耳錄》第八七回：「只要三角酒一完，咯噔的就打起哈起來了，飯也不能好生吃。」(許少峯 編，前揭書，頁729。)

144) 一宿：一夜。《敦煌曲子詞·樂世詞》：「霜多雨濕飛難進，慙借荒田一宿眠。」《紅樓夢》第二四回：「那天已是掌燈時候，賈藝吃飯，收拾安歇，一宿無話。」

145) 渴睡：瞌睡。想睡覺或因倦而進入睡眠、半睡眠狀態。《初刻拍案驚奇》卷十二：「王生酒意已醒，看看渴水上來，伸伸腰，打個呵欠。」

146) 爲頭兒：從頭，開頭。元·孫仲章，《勘頭巾》第三折：「爲頭兒對府尹說詳細，只教他欠身的立起銀交椅，驚殺了兩行公吏。」(許少峯 編，前揭書，頁1926。)

147) 只：這。《醒世恒言》第二七卷：「玉英姊妹看了只個光景，越發哭得慘傷！」(許少峯 編，上揭書，頁2399。)

148) 料：飼料。明·羅貫中，《風雲會》第二折：「疾忙教各部下關糧米，對名兒支料草。」(許少峯 編，上揭書，頁1162。)

149) 時：用作語氣間歇之詞，猶現代漢語中“呵”或“啊”字。參看前註 9)

150) 原文「半夜裏却拌饋他料吃」一句와 비슷한 내용을 《(原本)老乞大》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初喂時，則將料水拌與他，到五更一發都與料喫，那般時，馬每分外喫得飽。若是先與料呵，那馬則揀了料喫，將草都拋撒了(처음 먹이를 줄 때는 여물 삶은 물을 섞어서주고, 五更쯤에 여물을 함께 주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말들이 아주 배가 부르도록 먹을 것입니다. 만일 먼저 여물을 주어버리면, 말들은 여물만 골라먹고, 풀은 과 헤쳐지고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汪維輝，《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中華書局，2005年，

런히 먹이면, 어찌 살이 찌지 않겠습니까?

乙某: 說的是, “人不得橫財不富, 馬不得夜草不肥”。

그 말씀이 옳습니다. “말은 밤에 여물을 먹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고, 사람은 횡재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¹⁵¹⁾ 하였습니다.

第12話 下碁

甲某: 今日下雨, 正好¹⁵²⁾下¹⁵³⁾碁。咱們下一局賭¹⁵⁴⁾輸贏如何?

오늘은 비가 내려, 바둑을 두기에 적당하다. 우리 내기 바둑이나 한판 둘까?

乙某: 你那裏¹⁵⁵⁾贏得我?

자네가 어찌 날 이길 수 있겠는가?

甲某: 要甚麼合口¹⁵⁶⁾, 眼下¹⁵⁷⁾交手¹⁵⁸⁾便見輸贏。

언쟁할 필요는 없고, 바로 겨뤄보면 승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乙某: 你一般淺見薄識的人, 那裏抵當的我? 咱賭甚麼?

자네와 같이 무지하고 천박한 사람이, 어찌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우

16쪽)

151) 鄭庭玉 《後庭花》에서 “馬無夜草不肥, 人不得外財不富.”라는 대목을 볼 수 있고, 張國賓 《合汗衫》에서는 “人無橫財不富, 馬無夜草不肥”라는 구절을 볼 수 있다.

152) 正好: 正應, 適宜. 《紅樓夢》第十六回: 「早起我說那一碗火腿頓肘子很爛, 正好給媽媽吃。」(許少峯 編, 前掲書, 頁2381.)

153) 下: 着棋時走子兒。

154) 賭: 用財物作注比輸贏。

155) 那裏: 與現代漢語反問之語氣詞“哪裏”同。有“怎麼”、“如何”之意。元·石德玉, 《秋胡戲妻》第二折: 「多謝親家, 我那裏吃得這酒!」

156) 合口: 爭吵. 《小孫屠》十出: 「你如今與我收拾行李, 和我一同去還心願, 也免在家閑爭合口。」(劉堅·江藍生 主編, 前掲書, 頁118.)

157) 眼下: 目前, 現今. 《初刻拍案驚奇》第八卷: 「我去便要去, 只是你岳父不在, 眼下不得脫下。」(許少峯 編, 前掲書, 頁2155.)

158) 交手: 交戰, 搏鬥. 《水滸全傳》第三四回: 「當下秦明和花榮兩個交手, 鬪到四五十合, 不分勝敗。」

리 뭉 내기를 할까?

甲某: 咱賭一個羊着。

우리羊 한 마리를 걸기로 하세.

乙某: 這們時, 有一個輸了的便賽殺¹⁵⁹。

그렇다면, 한 번 지면 바로 끝내는 것으로 하세.

甲某: 可知¹⁶⁰便賽。

당연히 바로 끝나는 것일세.

乙某: 你饒¹⁶¹四着¹⁶²時纔好。

자네가 네 집을 깔고 두어야만 딱 맞추가 되겠군.¹⁶³

甲某: 硬¹⁶⁴道是¹⁶⁵着麼¹⁶⁶我饒四着。咱停¹⁶⁷下。

159) 賽殺: 賽, 猶畢也, “了”也。馬致遠, 《新水令》套曲: 「自賽了兒婚女嫁, 却歸來林下。」言婚嫁事畢也。元·曾瑞卿, 《留鞋記》: 「這回償了鴛鴦債, 則願的今朝賽。」言債務了結也。(張相, 前揭書, 頁442。)殺, 放在動詞後, 表示程度深。字也作煞, 作熬。元·缺名, 《舉案齊眉》第一折: 「哎, 屈沉殺三尺龍泉萬卷書, 何也波如, 非浪語。」(許少峯 編, 前揭書, 頁1621。)

160) 可知: 猶云當然也; 難怪也。《後庭花》劇一: 「你便道, 李順, 你要饒麼? 他道, 可知要饒哩!」(張相, 前揭書, 頁52。)

161) 饒: 即“饒先”。饒先, 棋類術語, 也稱讓先。棋藝水平有差距者對局時, 由高手讓低手先走一步、兩步或三步。宋·陸游, 《幽詩》詩之一: 「才盡賦詩愁壓倒, 氣衰對弈怯饒先。」饒, 又可作“益, 增加”。元·馬致遠, 《黃梁夢》第一折: 「客官, 你好性急也! 饒一把火兒着。」(許少峯 編, 前揭書, 頁1569。)

162) 着: 走棋叫着。《二刻拍案驚奇》第二卷: 「小道人一着饒天下, 女棋童兩局注終身。」(許少峯 編, 上揭書, 頁2356。)

163) 原文的‘饒四着에 대한 諺解는 ‘네 네홀 접해야이다. ‘접하다라는 말은 ‘접어두다라는 말로 ‘양보하다의 의미다. 위의 註 15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饒는 바둑용어로 ‘饒先의 의미, 즉 ‘넉 점을 먼저 두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益, 增加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앞의 문맥 즉 ‘你那裏贏得我(자네가 어찌 날 이길 수 있겠는가)?’ 말투를 볼 때, ‘넉 점을 양보 하겠다의 의미로 보았다.

164) 硬: 強行; 勉強。

165) 道是: 道, 用於句中或句首, 加強語氣, 無義。關漢卿, 《五侯宴》一【天下樂】: 「誰敢道是湯他一湯? 誰敢是觸他一觸? 可是他叫吶吶無是處。」(南立萇, 《關漢卿戲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年, 頁59。)

166) 着麼: 顧學頌·王學奇, 《元曲釋詞》卷四: 「着莫: 一, 謂猜測; 二, 謂撩惹; 三, 謂着落。(一)《西廂記》二本三折【殿前歡】: 「他不想結姻緣想甚麼? 到如今難着莫。」…上舉之例, 着莫即捉摸。猜測之意。一般寫作捉摸或琢磨。…《西廂記》二本三折【殿前歡】: (二), 《漢宮秋》二【梁州第七】: 「怎禁他帶天香着莫定龍衣袖。…以上各例, 着末、着麼、着莫、著抹, 音義並同; 猶云撩撥、沾惹。…(三), 《紫雲庭》三【三】: 「早則沒着末, 致仕了弟子, 罷任波虔婆。着末, 用爲名詞, 猶言把握、着落、歸宿。(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年, 頁516~518)

억지로 내가 너 점을 깔도록 하는데 168), 우리 맞두기로 하세나.

甲某:罷,罷!來拈子169)爲定。

그래 관두세! 돌을 집어서 선수와 후수를 가리기로 하세.

乙某:這一着170)好利害.殺171)一殺,入一入,趕一趕,扭將172)去打劫173)。

이 수가 정말 대단하군! 잡고, 들여다보고,174) 몰고, 방향을 바꾸어 패를 써야겠군!

甲某:我輸了,這劫時175)遲了!這個馬下了時好!

내가 졌어! 이 패가 늦었어! 여기서 놓는 것인데!

乙某:咳,這官人176)好尋思,計量大。

허허! 이 친구가 생각도 깊고, 수도 대단하군!

甲某:你的殺子177)多,沒眼178)碁,咱擺着看。

167) 停:對半;對等。《秋胡戲妻》二【脫布衫】:「爹爹也全不怕九故十親笑恥,則待要停分了兩下的財禮。」(劉聖·江藍生 主編,前掲書,頁319.)

168) 原文의 '硬道是着麼'에 대한 諺解는 「긋터여 이리 날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의 註 15) 번에서의 설명처럼, '着麼'는 '猜測(추측하다)', '撩惹(야기하다; 일으키다)', '着落(귀속시키다)'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용례를 볼 수가 있다. 이에 앞뒤의 정황으로 보아 原文의 '着麼'를, '撩惹'、'沾惹'、'招致'의 의미로 보고 「硬道是着麼我饒四着」一句를 '억지로 끌어다 내가 너 점을 깔도록 조장하다', '너 점을 깔도록 야기하다'로 해석하였다. 그래야만이 뒤에서 오는 「咱停下」와 「罷,罷!來拈子爲定」등의 구절과 맞아떨어진다고 보았다.

169) 拈子:以手指夾取棋子。

170) 着:此作“計策、手段”。

171) 殺:圍棋術語。將已被己方包圍的對方棋子置於死地。

172) 將:語義虛化,置於單音節動詞之後,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般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173) 打劫:打劫,圍棋術語。簡稱“劫”,也稱“劫爭”、“爭劫”。對局雙方從開劫、提劫、找劫、應劫、再提劫,直至劫最後解消的整個過程,均可概括稱爲“打劫”。

174) 原文 '入一入' 前後句에 대해서 《朴通事諺解》에서는 「주거리 주기고 드리리 드리고 몰리 모라 애위가 패터자(죽일 것은 죽이고, 받을 것은 받고, 몰아서 돌아가 패를 쓰다)」로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入'은 '들어가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엇보다', '들여다보다'로 해석하였다.

175) 時:此應作語氣助詞“呵”,表示停頓。

176) 官人:對男子的尊稱、泛稱。《水滸傳》八回:「董西公,一位官人在小店裏講說話。」按:《夢梁錄》卷十三:“鋪席”:“張官人諸史文籍鋪、徐官人幙頭鋪”此商人之稱。《武林舊事》卷六“諸色伎藝人”記:“棋待詔、金四官人;書會:李大官人;演史:周八官人等。此藝人之稱。”(龍潛庵編著,前掲書,頁577.)

177) 子:棋之一枚。

178) 眼:圍棋術語,一方子中所留的空兒,在這個空兒中對方不能下成活棋。

자네는 죽은 돌이 많고, 집이 없어! 누가 이겼는지 계가나 해 볼까?

乙某: 我不說停下來? 你說饒我四着, 我却怎麼贏了這三十路碁?

내가 맞두자고 말하지 않았든가? 자네가 나보고 네 집을 깔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삼십 집이나 이겼을까?

甲某: 來麼兄弟! 常言道, 高碁輸頭盤。

이보게 친구! 고수는 첫판에는 진다는 옛말이 있다네.

第13話 結做弟兄

甲某: 咱幾個好朋友們, 這八月十五日仲秋節, 斂¹⁷⁹⁾些錢做翫月會¹⁸⁰⁾, 咱就¹⁸¹⁾那一日說個重誓, 結做好弟兄如何?

우리 몇 명의 친구들끼리, 이번 8월 15일 추석에, 돈을 추렴하여 달맞이¹⁸²⁾하고, 그날 서로 맹세를 하고, 형제의 의를 맺는 것이 어떻겠는가?

乙某: 好意思¹⁸³⁾, 將一張紙來, 衆朋友們的名字都寫着請去。那個劉三舍¹⁸⁴⁾如

179) 斂: 湊集, 搜羅。《水滸全傳》第十二回: 「爲是楊志除了街上害人之物, 都斂些盤纏, 湊些銀兩, 來與他送飯。」(許少峯 編, 前揭書, 頁1148。)

180) 翫月會: 【夾註】《東京錄》云: 中秋夜, 貴家結飾臺榭, 民間爭占酒樓宛月, 絲簧鼎沸, 近內庭居民, 夜深遙聞笙竽之聲, 宛若雲外天樂, 閭里兒童連宵嬉戲, 夜市駢闐, 至於通曉。

181) 就: 此作介詞“在”。關漢卿, 《望江亭》三 正旦白: 「自從俺父親就那客店上生扭俺夫妻兩箇, 我不曾有片時忘的下俺那染病的男兒。」(藍立莫 編著, 《關漢卿戲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年, 頁137。)

182) 原文的“翫月會”는 8월 추석날 밤 달맞이 행사의 한 이름이다. 지금도 中國 甘肅省에서는 8월 추석에 달맞이 행사의 이름을 각 지역마다 ‘賞月’, ‘團圓節’, ‘獻月亮’, ‘玩月會’ 등의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甘肅·中秋贈禮相互拜賀》: 「在甘肅, 還是秉承中華文化之傳統, “饋節禮, 相拜賀, 至晚祀月”, “親識以瓜果相饋送, 晚置酒對月飲之, 謂之賞月”。… 在敦煌, “出嫁之女在母家者, 俱送歸夫家, 謂之團圓節”。… 在靈臺, 中秋夜月下陳瓜果, 供月餅, 焚香化表向月祭之, 俗謂獻月亮, … 在合水, 將祭月、賞月稱之爲“玩月會”。」

183) 意思: 心意, 用意。《紅樓夢》第三四回: 「這裏林黛玉體貼出手帕子的意思來, 不覺神魂飄蕩。」(許少峯 編, 前揭書, 頁2231。)

184) 舍: 宋元時稱貴顯子弟爲“舍人”。也簡稱“舍”。《救風塵》一 白: 「自家鄭州人氏, 周同知的孩兒周舍是也。」(劉堅·江藍生 主編, 前揭書, 頁281。) 【夾註】王公大人之家必有舍人, 卽家臣也。如本國伴僮之類, 爲權勢倚任之人, 貧賤之所羨慕者, 故街巷呼親職爲張舍、李舍, 乃一

何?

좋은 생각이네, 종이 한자 가져오게, 여럿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청하러 가세. 劉三 그 친구는 어떠한가?

丙某: 那厮¹⁸⁵)不成, 面前背後, 到處裏破別人夸自己, 說口¹⁸⁶)詔佞¹⁸⁷), 不得¹⁸⁸)仁義的人時¹⁸⁹), 不中¹⁹⁰)。

그 작자는 안 되겠어, 앞에서나 뒤에서, 아무데서나 남을 깎아 내리고 자기 자신만을 치켜세우고, 큰소리만 치고 아침도 잘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네.

乙某: 將筆來抹¹⁹¹)了着。

붓을 가져와 지워버리세.

甲某: 咱衆弟兄裏頭, 那一個有喜事便去慶賀, 有官司¹⁹²)災難便盡氣力去救一救. 우리 형제들 가운데, 기쁨일이 있으면 즉시 달려가 축하를 해주고, 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있는 힘을 다하여 도와주는 것일세.

乙某: 這般照顧¹⁹³), 却有弟兄之意。

이렇게 서로를 보살펴주어야, 의형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丙某: 咱休別¹⁹⁴)了兄長¹⁹⁵)之言, 定體¹⁹⁶)已後¹⁹⁷), 不得改別¹⁹⁸)。

時推敬之稱。又《質問》云：無職官下閑人爲之舍人。

185) 厮：對人不尊敬，輕視的稱號。“那厮”就是對“歹人”的貶稱。

186) 說口：同“說嘴”。夸口，說大話。元·高文秀，《許范叔》第二折：「不是我范睢說口，想報冤之期可也不遠。」(許少峯 編，前揭書，頁1745。)

187) 詔佞：阿諛逢迎。

188) 不得：不。關漢卿，《單刀會》一 魯蕭白：「隔江鬪智，小官知便知道，不得詳細。」(藍立冀 編著，前揭書，頁21。)

189) 時：用作語氣間歇之詞，猶現代漢語中“呵”或“啊”字。同前註 9)

190) 不中：不合適，於理不當。

191) 抹：用筆勾法，塗掉。《兒女英雄傳》第二五回：「何況人家爲我父母立塋安葬，蓋祠奉祀，這是何等恩情，豈可一筆抹倒!」(許少峯 編，前揭書，頁1306。)

192) 官司：此解“糾葛，麻煩事”之意。【夾註】凡干詞訟累禍之事，皆謂之官司。如鄉語子의 중。“司”字恐是“事”字之誤。

193) 照顧：照看，照顧。《水滸傳》十二回：「今去北京路途中，望乞二位上下照顧，好生看他一看。」

194) 別：擰，錯向別處。歪在一邊。《二十年目睹之怪現狀》第六回：「這個人本來是個騙子出身，姓包，包道守。人家認爲他騙術精明，把他名字讀別了，叫他做包到手。」又，《金瓶梅詞話》第四六回：「只落下蘭香在後邊了，別了鞋，趕不上。」(許少峯 編，前揭書，頁115。)

195) 兄長：同輩男子之間稱年長於己者。

우리는 저 형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규칙 등이 정해지면, 반드시 지켜야 하네.

乙某：這的¹⁹⁹時²⁰⁰，有甚麼話說。君子一言，快馬一鞭²⁰¹。

그거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장부의 일언은 증천금이라 하지 않은가!

< 參考文獻 >

原典類

-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諺解》，서울대학교규장각
《老乞大、朴通事諺解》，亞細亞文化史(影印本)，1973。
汪維輝，《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中華書局，2005。
錢南揚 著，《永樂大典戲文三種校注》，臺灣：華正書局，1990。
王學奇等 校注，《關漢卿全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1990。
李小強、王小忠 注釋，《西廂記》，中國文聯出版公司，1997。
劉堅、蔣紹愚 主編，《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元代明代卷)，商務印書館，2002。
王士點、商企翁(元)，《秘書監志》，百度(인터넷)電子版。

詞典類

- 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
張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
張相，《詩詞曲語辭匯釋》，上海古籍出版社，2009。

196) 定體：固定的體例、體式。

197) 已後：往後。即以後。明·陸采，《懷香記》第二八出：「我兩人止見這遭，已後事情，都問春英」(許少峯 編，前揭書，頁2222。)

198) 別：此作“不一樣，另樣。元·汪元亨，《醉太平·警世》曲：「嗟雲收雨歇，嘆義斷恩絕，覺連年情況近來別，全不似那些。」(許少峯 編，前揭書，頁113。)

199) 這的：這；這個。《元典章·台綱一》：「奉聖旨：這的休疑惑者。恁根底勾當的人每，您根底不商量了呵，休與者。」(劉堅·江藍生 主編，前揭書，頁421。)

200) 時：參看前注 9)

201) 君子一言，快馬一鞭：比喻一言為定，決不反悔。明·蘭陵笑笑生，《金瓶梅詞話》第五三回：「君子一言，快馬一鞭，人而無信，不知其可也。」

- 顧學頤、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
- 顧學頤、王學奇,《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
- 顧學頤、王學奇,《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
- 顧學頤、王學奇,《元曲釋詞》卷四,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
- 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
- 劉堅、江藍生 主編,《宋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9.
- 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
- 許少峯,《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
- 龍潛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
- 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
- 吳士勛、王東明 主編,《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1992.
-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
- 呂叔湘,《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1982.
- 張惠英,《金瓶梅俚俗難詞解》,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
- 《中朝詞典》,中國民族出版社,1986.
-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
-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纂室 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1986.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2001.
- 王鎔、曾明德,《詩詞曲語辭集釋》,語文出版社,1991.
- 王鎔,《詩詞曲語辭例釋》,中華書局(增訂本),1991.
- 王鎔,《唐宋筆記語辭匯釋》,中華書局(增訂本),1990.
- 王鎔,《宋元明市語匯釋》,中華書局(修訂增補本),2008.
- 蔣禮鴻 主編,《敦煌文獻語言詞典》,杭州大學出版社,1994.
- 蔣禮鴻 著,《敦煌變文字義通釋》,上海古籍出版社,1997.
- 劉昌惇,《李朝語辭典》,延世大學校出版部,2005.
- 藍立冀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
- 李法白、劉鏡芙 編著,《水滸語詞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9.
- 張永言 等編,《簡明古漢語字典》,四川人民出版社,1991.
- 卜鍵主 編,《元曲百科大辭典》,學苑出版社,1991.
- 史東,《簡明古漢語詞典》,雲南人民出版社,1985.
- 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
- 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

- 譚其驤 主編,《中國歷史地圖集》,地圖出版社,1982。
謝紀鋒 編纂,《虛詞話林》,黑龍江人民出版社,1992。
楊樹達 著,《詞詮》,中華書局,1990。
廖珣英 編,《全宋詞語言詞典》,中華書局,2007。
陸澹安 著,《小說詞語彙釋》,上海錦綉文章出版社,2009。

著書類

- 呂叔湘 著,江藍生 補,《近代漢語指代詞》,學林出版社,1985。
胡安竹 等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2000。
梁伍鎮,《老乞大朴通事研究》,태학사,1998。
太田辰夫 著,蔣紹愚、徐昌華 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1987。
香坂順一 著,江藍生、白維國 譯,《白話語匯研究》,中華書局,1997。
香坂順一 著,植田均 譯,《水滸詞匯研究(虛詞部分)》,文津出版社,1992。
江藍生,《近代漢語探源》,商務印書館,2000。
俞光中、植田均,《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2000。
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1999。
董志翹、蔡鏡浩,《中古虛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4。
曹廣順,《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1995。
王雲路、方一新,《中古漢語語詞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2。
胡竹安、楊耐思、蔣紹愚 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
蔣紹愚、江藍生 編,《近代漢語研究(二)》,商務印書館,1999。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 編,《現代漢語虛詞例釋》,商務印書館,1982。
房玉清 著,《實用漢語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6。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
呂叔湘,《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商務印書館,1984。
日·青山定雄 編,《中國歷代地名要覽》,臺灣:洪氏出版社,1975。
蔣紹愚、曹廣順 主編,《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商務印書館,2005。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大學出版社,2005。
李泰洙,《老乞大四種板本語言研究》,語文出版社,2003。
傅雨賢 等著,《現代漢語介詞研究》,中山大學出版社,1997。
魏耕原,《唐宋詩詞語詞考釋》,商務印書館,2006。

- 郭作飛, 《張協狀元詞彙研究》, 巴蜀書社, 2008.
- 張美蘭, 《近代漢語論稿》, 江西教育出版社, 2004.
- 陳秀蘭, 《敦煌變文詞彙研究》, 四川民族出版社, 2002.
- 程湘清 主編, 《宋元明漢語研究》, 山東教育出版社, 1992.
- 李嵩興 等著, 《元代漢語語法研究》, 上海教育出版社, 2009.
- 蔣禮鴻 《敦煌變文字義通釋》上海古籍出版社, 1981.年

論文

- 楊聯陞, <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 《東方學志》, 1955年(臺灣)
- 慎鏞權, <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 《中國語文學》第48輯, 2006.
- 李順美, <老乞大、朴通事常用詞匯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11年.
- 拙稿, <董西廂與王西廂裏的語氣助詞用例考>, 《中國語文論叢》第36輯, 2008.
- 拙稿, <近代漢語語氣詞用例考(上)>, 《中國語文論譯叢刊》第22輯, 2008.
- 拙稿,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第39輯, 2008.
- 拙稿, <老乞大語彙考(二)>, 《中國學論叢》第25輯, 2009.
- 拙稿, <老乞大語彙考(三)>, 《中國語文論叢》第41輯, 2009.
- 拙稿, <老乞大語彙考(四)>, 《中國語文論叢》43輯, 2009.
- 拙稿, <老乞大語彙考(五)>, 《中國語文論叢》44輯, 2010.
- 拙稿, <老乞大語彙考(六)>, 《中國語文論譯叢叢》27輯, 2010.
- 拙稿, <原本老乞大語彙註釋(一)>, 《光州大學校 人文科學》10輯, 2010.
- 拙稿, <原本老乞大語彙註釋(二)>, 《光州大學校 人文科學》11輯, 2011.
- 拙稿,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一)>, 《中國語文論叢》47輯, 2010.
- 拙稿, <原本老乞大新註新譯(二)>, 《中國語文論叢》48輯, 2011.
- 拙稿, <朴通事新註新譯(一)>, 《中國學論叢》33輯, 2011.
- 이수진, <老乞大處置文의 把/將字研究>, 《中國學》26輯, 2006.
- 맹주억, <老乞大諺解 諸板本에 반영된 통사규칙 난점의 유형>, 《중국학연구》42집.
- 맹주억, <老乞大諺解類 諸板本中'着'의 번역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제39권.
- 金美娘, <老乞大 4종판본 전치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鄭旭, <老乞大이 V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鐘煥, <民族史研究中的“他者”視角>, 《歷史研究》2008年 第1期, 2008.
- 陳高華 《舊本老乞大書後》, 中國史研究, 2002年 第1期.

〈 中文提要 〉

《老乞大》近二萬字，分上、下卷。此書以高麗商人來中國經商為線索，用對話的形式，表現道路見聞、住宿飲食、買賣貨物等等，中間插入一些宴飲、治病的段落。《朴通事》的字數近三萬字，約比《老乞大》多三分之一，分成上、中、下三卷。全書用對話或一人敘述的方式，介紹中國社會生活的各个方面，涉及宴會、買賣、農業、手工業、詞訟、宗教、游藝、景物等多項內容。兩書的史料價值，非常之高。正如著名學者楊聯升教授所說：「從史學看，有許多難得的關於元、明兩代風俗事物的記載。從語學看，有很多珍貴的元末明初的口語史料。」從元代到清代的《老乞大》、《朴通事》系列，是研究元代到清代漢語變化寶貴資料。

《朴通事》與《老乞大》同為高麗、朝鮮兩朝人學習漢語的兩部會話教科書。關於二書原著者的生平時代，雖不可詳考，但根據書中文字內容及其他參考資料，仍可大致認定此書的最初編著年代為元代，最初刊行約在公元1346年間（1998年在韓國發現所謂的舊本《老乞大》本子，韓國學者稱之為《原本老乞大》）。傳世的《朴通事》主要有三種：《翻譯朴通事》（上；1517年）、《朴通事諺解》（上、中、下；1677年）和《朴通事新釋》（1765年）。其中《翻譯朴通事》為崔世珍對《朴通事》所作的諺解，這是今天所見最早的《朴通事》板本，可惜已經不全（只存上卷，缺中、下卷）。《朴通事諺解》則是朝鮮顯宗時期邊暹、朴世華等十二人對《翻譯朴通事》所作的修訂。《翻譯朴通事》《朴通事諺解》的漢文部分除少數文字有差異外，內容基本一致，由於《翻譯朴通事》已經不全，所以本譯註採用《朴通事諺解》本為藍本。

崔世珍譯註的《朴通事諺解》（原書後所附《老乞大集覽》和《單子解》，《朴通事諺解》有許多雙行小註，即所謂的“夾註”）一書，是一份“解釋詳明，徵引繁富”的珍貴資料，對研究漢語語言、文化和讀懂原文頗有價值。並且近來韓國、中國、日本等國家的學者，全面而不同角度對這兩系列書進行研究，取得了相當可觀的成績。因此本譯註以《朴通事新註新譯》為題目，力求在前人研究的基礎上，希望有所彌補與進一步發展，並給與研究《朴通事》、《老乞大》一系列研究者的小小的推動。

關鍵詞：朴通事，朴通事諺解，朴通事譯註，朴通事新註新譯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10.7	2011.11.7	2011.11.17	2011.11.23	2011.11.30